

제주도 전설지의 특성 및 자원화¹⁾

좌혜경(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1. 서언

제주사람들의 삶과 인식을 반영하면서 내려오는 이야기를 설화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전설은 증거물을 지닌 이야기유산(Story Heritage)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자원적인 가치를 지닌다.

전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나 전설을 이야기하는 증거물인 ‘전설지’에 대한 연구는 큰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마을유산 보전 및 자원화를 위해서는 전설과 관련된 일정의 증거물이 크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곧 ‘전설지’는 전설이 전개되는 사건과 직접 관련된 장소이거나 지형지물의 지리적인 특징이나 명칭의 유래 또는 습관의 기원을 전하는 기능이 있다.

전설에 대한 역사문헌 기록으로는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또는 『전설자료집』 등을 들 수 있는데, 역사·문헌상²⁾에는 주로 역사 전설이 기술되고 있으며, 관련된 인물이나 역사 전설들은 그 지역의 정체성으로 삼을 만하다.

일반적으로 인물전설은 아기장수나 장사, 효와 열, 충과 관련된 주제가 중심이며 부모에게 효도를 다 하는 효자와 효녀, 절개와 지조를 지켜나가는 열녀와 같은 교훈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데, 특히 ‘날개 달린 아기장수’ 전설은 날개 달린 체 태어나 영웅적 일대기를 살아가는 비범한 인물 군으로, 비범한 능력을 가진 특이한 인물들이 상황에 의해 좌절하거나 적응해가며 살아가는 이야기가 중심이다. 이 전설은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죽음을 당하여 몰락하거나 좌절하는 육지부 아기장수에 비해서 제주의 아기장수는 날

1) 본고는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5년 정책과제, “제주도 전설지 현지조사 및 지원화 방안 연구”, (좌혜경·현길언)에서 발췌한 원고임, 이는 제주학연구센터 정책연구 과제를 연구자들과 일반인들 대상으로 발표하여 정책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개된 토론의 장을 통해서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행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임

2) 『고려사(高麗史)』,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송정규(宋廷奎), 『해외문견록(海外聞見錄)』, 임제(林悌), 『남명소승(南溟小承)』, 이증(李增), 『남사일록(南槎日錄)』

개만 잘린 채 영웅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서 육지부에 비해 그 비극적인 맛은 감소되고 있다.

역사전설은 역사상의 실재인물이나 사건을 반영한 전설로 영웅적인 인물에 관한 것이거나 사건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풍수전설은 땅과 관련된 것, 민간 신앙을 풀어내는 유형이 있다. 이러한 유형은 호종단의 단막전설, 명지관이나 풍수사, 지리를 해석한 음택지나 명당터에 얽힌 전설들이다. 또한 자연전설은 단막이나 한라산을 중심으로 지형지물의 생성과 창조물로서 자연물의 특이한 현상을 전하고 지리적 조건이나 자연물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본고는 제주전설과 ‘전설지’ 특성을 살피고 전설지와 전설의 사회 문화적 기능을 확인하여 지속보전을 위한 가능성과 마을별 자원으로 삼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전설지 유형 분류

가. 인물전설

제주의 인물전설 유형은 인물이 사건을 진행하여 주인공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날개 달린 아기장수나 힘센 장사, 힘센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는 보통 사람들보다 육체적으로 강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영웅적인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다.

역사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효행을 높이 산 인물 박계근을 기리는 삼정문(三旌門)은 충효열의 의미를 담은 전설지로, 본인의 효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딸의 열(烈)과 종인 고소락(高所樂)의 충(忠)으로 상징되고 있다.

또 성산읍 고성리 ‘천의 효자’라고 일컬어지는 홍달한(洪達漢)의 효행과 충절이 높이 추앙되었는데 인근 마을 수산리에 관련 정려문이 있다.

여성들이 남편을 잃고 열로서 자신을 지켜나간 한경면 용수리 절부암의 열부 고씨는 지역주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으며, 신재우 판관과의 사후 인연 등의 스토리가 극적이므로 제주의 대표적 열녀 전설로 일컬어지고 있다.

나. 역사전설

역사전설은 문헌에 전해지면서 사건과 인물이 중심이 되는데 사건 서술의 대부분은 역사기록과 관련된 이야기들로서의 특성이 강하다. 실제 역사상의 인물을 전설화한 경우도 역사적 사실에 지역민의 인식이 공유되면서 나타나며 삼별초 난의 김통정, 목호의 난 최영, 김만일, 목사 이형상과 서련 판관 등이 있다.

특히 제주의 공안(관리형)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이형상이나 서런 판관에 대한 전설은 지배이데올로기를 지향하지만, 그에 저항하는 탈지배이데올로기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전설에서는 삶에 대한 치열한 의식과 억압을 극복하기 위한 삶의 진지성이 드러나고 있다.

다. 풍수전설

풍수전설은 전통적인 풍수이론에 대한 인륜 도덕을 담고 있으며, 역행을 배제하고 순리에 따른 덕을 베풀어 남을 이롭게 하며, 지극한 효성을 갖추어야 하늘이 도와서 명당을 내린다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풍수전설은 호종단 전설, 풍수사나 지관형, 명당 및 음택형, 방사형 등이다.

중국의 풍수사라고 하는 호종단(胡宗旦) 일명 ‘고종달’ 전설에서는 수혈(水穴)과 단혈(斷穴) 관련 모티브가 중심이 되며 왕후지지의 땅을 지키기 위한 제주민의 염원이 잘 반영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음택풍수 전설은 전도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사람이 죽으면 좋은 음택지인 명당에 묻어서 좋은 땅을 씌므로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고 자손 발복을 염원하게 된다.

라. 자연전설

자연전설은 자연지형을 조합하여 이야기를 엮어나가고 전설지에 대한 기형(奇形)의 원인을 해석하며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설문대할망 전설은 제주의 자연지형을 해석하고 제주도의 형세를 ‘설문대할망’이라는 거녀의 행동과 신체로 ‘전설지’를 해석하고 있다.

또한 설문대할망 전설은 한라산 산방산 일출봉 식산봉 다랑쉬오름과 같은 제주의 대표적인 산이나 오름이 등장하고, 소섬 관탈섬 지귀도 마라도 소섬과 같은 섬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설문대할망의 행위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천지창조 신화의 한 계열로도 볼 수 있다.

설문대전설과 관련된 성산 일출봉에 있는 기암인 ‘등경돌’과 제주시 오라동 의 모자모양으로 생긴 ‘죽두리석’은 거석신앙의 일례로 볼 수 있으며, 산천이나 도서, 평야, 암석, 못 혹은 큰물의 힘을 간직하고 떨어지는 폭포 등 자연물의 형상이나 향유자들의 상상력에 의해 생긴 전설은 각각의 특정한 개별적 증거물이 있는데 이를 인간의 삶과 연결시켜 전설화하고 있다.

3. 전설의 특성과 전설지 활용

가. 인물전설

1) 날개 달린 아기장수

제주에 남아 전해지는 ‘날개 달린 아기장수’ 전설과 관련된 이야기는 그 스토리가 다양하며 제주전역에서 전해지고 있으며, 전설 속의 아기장수는 ‘강정마을 쌍둥이 아기장수’, ‘날개 달린 밀양박씨’, ‘홍장사’, ‘한연한배임재’, ‘문사령’ 과 같은 유형에서 찾을 수 있다.

제주의 날개달린 아기장수 전설은 아기장수가 태어나서 한 시대 상황에 의한 횡포와 탄압을 거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적 갈등극복의 한 방법으로 아기장수를 죽이지는 않고 날개만 자르고 살아가게 한다는 내용인데, 이는 제주가 왕이 태어날 땅 곧 왕후지지(王侯之地)로서 날개 달린 아기장수의 출현이야말로 제주 사람의 소망과 염원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영웅적 면모를 강조하는 아기장수의 탄생과 죽음은 풍수지리적인 면을 강하게 반영하는데, 조부의 묘가 ‘장군대좌형’이어서 이장을 위해 묘를 파면 황새(소)가 날개를 펴서 퍼덕이고 있거나, 묘 속의 쿵은 말이 되고 팔은 군사가 되었다는 등의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다.

제주의 아기장수 이야기 속에는 비범한 인물의 일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평민집안에서의 장수의 출현을 터부시하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점, 육지부의 경우 반사회적인 아기장수를 죽여서 거부한데 반해 제주사람들은 아기장수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 특이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결국 제주의 아기장수는 날개 없이 힘이 센 장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는 제주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상징적 대상인 날개 달린 장수를 바라는 제주민의 의지 표현의 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곧 아기장수의 날개를 자르는 행위는 비상하는 욕망의 일시적 좌절이라 할 수 있으며 행동하는 비범성과 해적을 무찌를 수 있는 장사의 힘이 내포되고 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전설지로는 구좌읍 평대리 ‘베드린개’(해안가에 위치) 부대각 ‘망사비’(望思碑)가 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실존하고 있는 인물 ‘夫萬戶父公時興’이며 관련 자료로는 부씨 집안의 족보와 후손필사본이 있다.

날개 달린 아기장수인 인물전설의 주인공 ‘부대각’의 휴머니즘적인 모습을 알리고 마을의 정체성으로 삼아서 전설의 내용을 콘텐츠로 활용하여 자원화가 가능하다.

2) 장사(壯士) 형

장사형 전설은 장사보다 여성인 누님이 힘이 세는 등 ‘오늬힘내기’ 전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전설로는 ‘오찰방’, ‘고대각’, ‘심돌강씨할망’으로 동생보다 힘이 센 여성인물로 제주의 여성성을 강조할 수 있다. 또한 힘이 센 장사들은 날개가 잘려 장수

는 되지 못하고 힘센 장사가 되는데, ‘오찰방’, ‘고대각’, ‘고삭배’ ‘막산이’(중문, 창천, 안덕)가 있다.

장사 유형인 경우 종의 신분인 장사와 평범한 집안 장사로 나뉘며 종의 신분인 장사들은 모두가 대식가들이고 먹는 만큼 초인적인 일을 했으나 너무 많이 먹어서 주인집에서 쫓겨나가 죽게 되며, 평범한 집안의 장사는 육지와 장사를 하면 힘이 세어서 수적을 물리칠 수 있거나 또는 조정에 협조하여 작은 벼슬을 얻게 된다. 힘이 센 장사들의 역할은 노동을 위한 힘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당대 현실의 반영이다.

3) 효자(녀)와 열(녀)

효행 전설은 주인공의 희생과 부모의 보은, 지성감천(至誠感天)의 이적이 나타나는 구성을 통해 효행설화의 의미와 기능을 전달한다. 효의 구현에 이바지한 남성은 효자이고 여성들은 효부이거나 효녀들로서 그 행위 속에는 효지상주의 관념적 사고가 강하다.

효를 구현하는 데는 위협에 처했을 때 행하는 행위가 신이(神異)를 나타내거나, 신체의 일부를 희생하여 부모를 공양하고, 효성으로 이적(異蹟)을 행하며 특히 연명하거나 득약이 있어서 먹고 싶은 음식을 얻어서 먹는 등 다양한 모티프가 등장한다.

제주를 대표하는 효자와 관련된 전설지로서는 애월읍 신엄리 박계곤 삼정문(三旌門), 성산읍 수산리 소재 정려비, 목자 고운문 정려비, 김녕리 박명복 김칭 효자 정려비를 들 수 있다.

효녀(부)들은 인신공희(人身供犧)를 통해 자기희생으로 가문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효지상주의적 사고는 시공을 넘어서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감천의 효라는 기적을 나타내 보이는데, 『삼국유사』에 나오는 손순(遜順)의 매아(埋兒) 설화, 『삼국사기』의 효녀 지은(知恩)설화, 고전소설 심청전과도 그 맥이 닿아 있다.

구좌읍 하도리 김씨의 예를 들면 일찍 남편과 사별한 후 끼니조차 때우기 어려운 가난한 살림살이를 하면서도 품삯을 얻어다 시증조부를 극진히 봉양하고, 추운 겨울철에 병중에서 시증조부가 “생선을 먹고 싶다.”하므로 눈 내리는 해안가에서 “우리 할아버님께 드릴 생선 한 마리만 주십사.”고 마음속으로 빌자 생선 한 마리가 물으로 올라와서 잡아 국을 끓여 드렸으며, 이른 봄에 홍시를 찾아 야산에 가서 하루 종일 헤매다보니 앙상한 감나무 가지에서 월동한 감알을 발견하고 따다 드려 천수(天壽)를 다하였다고 전한다.

열녀(烈女)인 경우 한경면 용수리 절부암의 열부고씨는 신재우 판관과의 사후 인연 등 그녀에 대한 전설이 전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 고려말의 국지(國只), 애월읍 팍지리 김천덕, 애월읍 금성리 효열부 좌씨, 태흥리 오씨 등은 제주의 대표적 열녀로 교육 자료화하거나 관광자원화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천의(天醫)로 월계 진좌수 전설과 신의(神醫)로 인구에 회자되던 좌자이(左自以)가 있다. 월계 진좌수는 여우가 변신한 미녀와 구슬을 가지고 희롱하다가 구슬을 삼키고, 하늘, 땅, 사람을 쳐다보라는 스승의 말을 거역하고 구슬을 삼킨 후 사람만을 쳐다보

아서 명의를 된다.

그가 죽기 전에 미리 예언하여 처방하여 두고 누님의 목숨을 건진다거나 지금도 진좌수 묘역에 환자들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전설 이상으로 신앙과도 같다. 진좌수에 대해 천의 관련 전설은 전국적인 광포전설로 많은 이들에 의해 회자되고 있다.

좌씨 입도조 3세인 좌자이는 왕후가 병이 나자 남쪽 절해고도의 명의를만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여, 구좌읍 한동리 일대의 토지를 하사받아서 경영하였는데, 이를 ‘좌가장’이라 전하고 있다.

나. 역사전설

역사전설은 사건과 인물이 중심이 되고 사건 서술 대부분은 역사기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사실감 있게 전개되면서 전설화되고 있다. 실제 역사상의 인물이 전설화 된 경우에는 사건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이 공유되면서 나타난다.

삼별초의 김통정이나 목호의 난 최영, 열녀 정씨, 경주김씨 감목관 김만일, 신당을 파괴한 제주목사 이형상, 김녕사굴의 구렁이 퇴치한 판관 서런 등의 역사 관련해서는 인물 중심의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 역사전설에서도 사건 진행을 위해서 ‘아기장수전설’, ‘풍수전설’, ‘공안전설’등 관련 내용이 삽입되면서 전설적 요소가 강화되고 있다.

김만일 전설지는 남원읍 의귀리 묘역이 2009년 7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기념물 제65호로 지정되고 있다. 그런데 김만일의 4대조, 5대조 묘역이 있고 마(馬)테마 전설지이면서 명혈지인 산마장(반드기왓) 중심의 도유지와 마을목장을 자원화하여 ‘말문화전시관’ 및 ‘김만일기념관’ 설립하고 옷귀마(衣貴馬)테마타운 조성으로 요양원 시설과 마문화 교육장, 승마 경주장, 체험장, 승마 교실, 승마 의료실 등의 시설 설치, 생가터 복원으로 역사현장 교육장으로 활용가능하다.

원종 12년(1271) 삼별초 내도와 관련한 항몽에 대한 역사 속에서 김통정 인물을 부각할 필요가 있는데, 영웅적 존재(신이적인 탄생: 지렁이의 아들)로서 김통정은 향유층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인물을 중심으로 ‘항과두리’ 인근의 자연지형을 부각시키면서 관련 유적지나 전설지를 엮어서 역사 문화 관광자원화가 가능하다.

다. 풍수전설

제주에는 산천의 좋은 기운을 모으는 땅인 명당이 있고 땅의 지혈을 끊는 단혈(斷穴)과 관련된 이야기 등 풍수와 관련된 전설이 많은데, 그 특징은 전통적인 풍수 이론과 함께 인륜 도덕을 담고 있으며 역행을 배제하고 순리에 따른 덕을 베풀어 남을 이롭게 하고 지극한 효성을 갖추어야 하늘이 도와서 명당을 내린다고 인식되고 있다.

풍수전설은 인간의 대자연적의 조화와 천지인 삼재사상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음택풍수 전설은 전도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서 사람이 죽으면 좋은 음택지인 명당에 묻고, 좋은 땅을 씀으로 위대한 인물의 탄생에 영원함과 동시에 자손복복을 기원한다. 유명한 지관인 고전적, 문국성, 오좌수 등의 풍수전설은 권선징악적인 요소가 강해서 신성한 지역을 나타내는 데는 돌이 있고 그 돌을 파내자마자 물이 고여 금장지(禁葬地)가 되어 ‘샘물’과 ‘돌’은 음택풍수의 주요 소재라 할 수 있다.

제주가 ‘왕후지지의 땅’이어서 중국의 황제가 압승술(壓勝術)에 뛰어난 중국의 풍수사인 호종단을 파견하여 지맥을 끊는다는 모티프는, 풍수학적 상징과 형상화를 통해 제주를 하나의 독립국가로 인정한다는 의미인데, 제주에 도착한 풍수사는 명혈들을 끊어나가는데 한라산신의 방해로 계획대로 모든 혈을 끊지 못한 것은 제주민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풍수전설 중 호종단 전설지는 호종단의 물혈, 지맥 단절에 대해 극복했던 지혜와 중국에 대한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용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고, 전설적으로는 호종단 물혈 끊기에 실패한 수량이 풍부한 물들을 보존 (예) 표선면 토산리 거슴새미, 느단새미, 서흥리 지장새미)하고 물을 활용하여 자원화하기 위한 전설 스토리텔링도 필요하다

라. 자연전설

자연전설은 자연지형을 조합하여 이야기를 엮어나가고, 지형에 대한 기형(奇形)의 원인을 해석하고 있다. 자연전설은 제주인들이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데, 자연 전설지의 발생원인 등에 대해 자신들의 삶과 관련시켜 지명을 붙이거나 형성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설문대할망 전설은 제주의 자연지형을 해석하고 제주도의 형세를 ‘설문대할망’이라는 거녀의 행동과 신체로 나타내는데 신화적인 요소도 강하다. 천지창조 신화로서 성모신, 지모신적 특성을 지니면서 모성성이 강조된 위대한 어머니(The great Mother)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성산 일출봉에 있는 기암인 할망이 불을 밝힐 때 사용했던 ‘징(등)경돌’과 제주시 오라동 한천 모자모양으로 생긴 ‘죽두리석’은 거석신앙의 일례이다. 산천이나 도서, 평야, 암석, 못 혹은 큰물의 힘을 간직하고 떨어지는 폭포 등 자연물의 형상, 향유자들의 상상력에 의해 생긴 전설은 각각의 특정 개별적 증거물이 있는데 이를 인간의 삶과 연결시켜 전설화한다.

한라산의 전설 중에서 아흔아홉 계곡, 명주 99통 등 모자람의 모티프는 부족했던 제주민의 삶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하나를 채우기 위한 제주사람들 노력이 역사 속에 반영되고 있다.

자연전설 중 한경면 고산리 수월봉에는 가족의 사랑과 효를 주제로 ‘수월이와 늑고’의

전설지 테마공원 조성이 가능하다. ‘수월이와 녹고’의 전설 스토리텔링으로 영약인 ‘오가피’를 활용한 지오푸드(Geo Food)를 개발하여 관광자원화하거나, 근대기 고산리의 명의였던 좌임관의 인물에 대한 의의를 담아서 천연약재를 활용한 의술을 소개하고 약재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특성화된 마을로 부각할 필요가 있다.

4. 결어

제주의 전설은 주변부가 중심이 되는 사유전환을 통해 제주의 비전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날개달린 아기장수나 장사와 같은 힘센 인물, 힘센 여성, 효자, 열녀, 열부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중요한 소재가 되고 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전설과 전설지의 소재지를 홍보하여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속적인 전승이 되도록 외부인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이야기와 관련된 ‘전설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에 남아있는 전설지를 정비하여 기념물 등 문화재로 지정한 후 보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주전설 중에 대표적인 것을 선정하여 접근성이 쉽도록 편찬 보급하는 일이 필요하고, 교육 기관에서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모색도 시급하다.

인물 역사 풍수 자연 전설과 관련한 전설지의 인문 자연경관을 자원화하고 제주도의 풍수전설이나 자연전설 관련 ‘전설지’는 땅의 의미를 더하여서 제주의 생태 환경과 함께 ‘생명의 땅’이라는 감성을 심어서 지역민들이 가치창출로 관광자원화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의 이야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콘텐츠용 지원 원천 소재를 조사 발굴하며 이야기의 가치와 의미를 찾고 이야기 기획 개발 창작 활성화를 추진하는데, 문화원형(원재료, raw materials) 스토리텔링으로 멀티유즈(multi use, 무대공연, 축제, 방송, 영화, 음악, 인프라사업,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광고, 이러닝, 출판 등)로 활용하도록 한다.

제주의 관광산업은 문화산업이 되어야 하는데, 문화를 상품화한다는 의미보다는 새로운 문화의 실상을 세계인들에게 전함으로써 문화의 소통을 기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그 예로 전설의 증거물을 통해 스토리가 있는 올레길을 조성하고, 지역전설에 관하여 작은 소책자를 제작하여 증거물의 주소지를 알려줌으로써 이야기의 실체를 재생산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제주도 전역의 전설 발자취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전설 지도 제작하는 일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문헌

『고려사(高麗史)』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송정규(宋廷奎), 『해외문견록(海外聞見錄)』 (일본 천리대 소장본)
 임제(林悌), 『남명소승(南溟小承)』
 이증(李增), 『남사일록(南槎日錄)』, 김익수역, 제주문화원, 2001.

전설자료집

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濟州說話集成)(1)』,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원, 1985.
 남평문씨만제공파세보(상), 남평문씨대중회, 1981.
 서귀포시, 『서귀포시 지명유래집』, 1999.
 오성찬, 『영원한 고향마을, 好近·西好里』, 제주의마을4, 반석, 1986.
 제주도편, 『제주의 민속Ⅲ』, 제주도, 1995.
 제주도편, 『제주도전설지』, 제주도, 198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가 펴낸 우리고장 이야기』, 2014.
 진성기, 『제주도 전설』, 백록, 1993.
 현길언, 『제주도의 장수설화』, 흥성사, 1981.
 현길언, 『제주문화론』, 탐라목석원, 2001.
 현길언, 『섬에사는 거인의 꿈』, 태학사, 2014.
 현길언, 『제주설화와 주변부 사람들의 생존양식』, 태학사, 2014.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당, 1996.
 현용준·김영돈, 『韓國口碑文學大系』, 9-1, 9-2, 9-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연구논문

강진옥, <마고할미에 나타난 여성신 관념>, 『한국민속학』 25, 민속학회, 1993.
 강현모, <이몽학의 오늬힘내기 전설고>, 『한양어문연구』 제6집, 한양어문연구회, 1998.
 신영대, <제주와 풍수전설> 『한라산의 구비전승·지명·풍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2006.
 심정섭, <전설의 문학적 구조 -아기장수 전설을 중심으로->, 『문학과지성』 제27호, 1977.
 유증선, <설화에 나타난 효행 사상>, 장암 지현영 선생 화갑기념논총, 1971.
 유증선, <암석신앙 전설-경북지방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제2호, 민속학회, 1970.

- 이신선,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전설교재에 관한 연구>, 『어문학교육』 제14집, 어문교육회, 1992.
- 이인모(오), <풍수 설화의 단맥 모티프 연구>, 인하대, 1985.
- 이태일, <안동지방의 전설과 민간설화>, 『문교경북』 34, 경북교위, 1972.
- 이현복, <김포지방의 전설고>, 『기전문화연구』 제15집, 인천교대기전문화연구소, 1986.
- 이혜화, <아기장수 전설의 신고찰>, 『한국민속학』 제16집, 민속학회, 1983.
- 오라동주민자치센터·제주대학교스토리텔링연구개발센터, 『신선 찾아 방선문 가는 숲길』, 2013.
- 장장식, <아기장수 전설의 의미와 기능>, 『국제어문』 제5집, 국제어문학연구회, 1984.
- 장장식, <전설의 비극성과 상상력>, 『한국민속학』 제19집, 민속학회, 1986.
- 전신재, <아기장수 전설과 비극의 논리>, 『논문집』 제8집, 한림대, 1990.
- 조동일,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 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1979.
-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 조석래, <전설에 나타난 전승자 집단의 의식세계>, 『진주문화』 제8호, 진주교대진주문화연구소, 1985.
- 좌혜경, <제주도 구비문학의 전승변이적 특성>, 『제주도연구』 33집, 제주학회, 2010.
- 천혜숙, <아기장수 전설의 형성과 의미>, 『한국학논집』 제13집, 계명어문학회, 1988.
- 천혜숙, <장자못 전설의 재고>, 『민속어문논총』 계명대출판부, 1983.
- 최래옥, <아기장수 전설의 연구>, 『한국민속학』 제11집, 민속학회, 1979.
- 현길언, <제주설화를 통해 본 제주정신 고구>, 『제주대논문집』 제12집, 1980.
- 현길언, <제주오누이 장사 전설-제주인물전설의 의미->, 『탐라문화』, 창간호.
- 현승환, <섬이동 설화고-비양도설화를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7호, 제주도연구회, 1990.
- 현승환, <비양도 설화의 양상과 국토부동관>, 『탐라문화』 제11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1.